

지난 9월 6일 북한쪽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방류된 불 때문에 임진강에서 여러 명이 사망·실종하는 사고가 일어나 담 관리 책임자가 구속되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06년 4월 서울의 한 사격장, 권총에서 나온 불티가 사격장 바닥에 떨어져 화약으로 튀어 옮겨 붙으면서 불이나 증압인 1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3명을 포함해 6명이 크게 화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도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곧바로 전국 사격장의 화재 예방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 반밖에 안 된 1월 15일, 이번에는 부산의 실내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분 만에 일본인 관광객 7명이 포함된 10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도 경찰과 방재 당국은 부랴부랴 전국 118개 사격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

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도 이번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실내 사격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3년 반 전보다 조금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몇 차례 대형 사고를 당하고 거기가 외교 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난 뒤에야 “관련 법령을 정비, 보완하겠다”고 나서서 곳이 우리나라이니 참으로 딱한 노릇



불자 세상보기

이병두 칼럼니스트

허물을 고치는 데 주저하지 말라

아닌가.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든지, 정부는 변함없이 ‘서민 생활 안전’을 입버릇처럼 내세운다. 곳곳에 정부 광고가 내걸리고 TV에서는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는 홍보 영상을 끝없이 내보낸다. 그런데 이런 말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왜? 너무 자주 속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안전을 책임져줄 것이라 기대하면 낭패를 당한다. 그러나 나와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점점 커져간다.

이제 복지국가이고, “서민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옛날 말에 ‘개과불린(改過不吝)’, “허물을 고치는 데에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중앙과 지방 정부 청사마다 이 말을 크게 써서 걸여놓고, 행정의 최고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복지 국가’? ‘서민 생활 안정’을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으니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는 다짐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의 책임은 그렇다치고, 자칫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기본적인 방재 시설도 갖추지 않고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이처럼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 실탄 사격장 사업가들의 책임은 또 얼마나 큰가?

부처님 당시 상수 제자 중 한 분인 사리뿔타가 옛 친구인 다난자니(陀然)가 “계를 어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잘못을 지적하자 친구는 “나는 세속에 살면서 부모를 모시고 처자를 보살피야 하오.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고, 조상님들 제사도 지내야 하고 사문과 바라문에게 보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오.”라며 목적이 정당하니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뜻을 밝혔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느라 악행을 했다고 하세. 처자나 조상을 위해 악행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느라 악행을 하고, 보시를 하기 위해 악행을 했다고 하세. 그렇다고 그가 지은 죄가 감해질 수 있겠는가?” (중아함) ‘범지타연경(梵志陀然經)’

이것이 사리뿔타가 옛 친구를 위해 해준 우정 어린 해답이다. 실탄 사격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해줄 수 없다”는 오랜 격언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국민 행복 위한 포교결집대회

“돌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중간도, 끝도 흔들리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려라.”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에게 명한 ‘전법선언’이 2600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국 율림법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11월 14일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제1회 포교결집대회에서는 60명의 아라한이 1만2000여 보살로 나투어 ‘포교실천결의문’을 낭독하는 현대판 전법선언식이 병행됐다.

포교원 발원회 이후 최대의 포교역량을 보여준 이번 대회는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이 발원한 ‘불교중흥’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다음 과제는 이러한 대회가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회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포교사업을 점검하고 전국적인 사찰신도회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불자를 양성하는 데 더욱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전법선언은 불자가 아닌 무종교인, 이웃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의 법음(法音)을 들려주는 불교로 거듭나는 사부대중의 노력도 절실하다.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수승한 포교임을 인식하고 자각각타(自覺覺他)의 대승보살행을 쉬지 말아야 한다.

초기불전연구원의 역경불사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2600여 년에 달하는 불교사 전개에도 근원이 있다. 뿌리를 거부하고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듯이, 근원을 모르는 불교는 이 시대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불교 만대의 뿌리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빠알리 삼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빠알리 삼장의 한글 원역을 발원하며 2002년 설립된 초기불전연구원 <다가 니까야(중앙합경)>와 <앙구따라 니까야(중앙합경)>에 이어 최근 <삼수따라 니까야(중앙합경)>를 원역하는 등 불과 7년만에 24권의 초기불전을 번역·출간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내년 5월 <맛지마 니까야(중앙합경)>를 번역해 4부 니까야를 모두 원역하고, 2015년까지는 율장(위나야 빠따까)과 논장(아비담마 빠따까), <빠알리-한글 대사전>도 출간할 예정이어서 초기불전 역경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초기불전연구원의 역경불사는 동국역경원이 역경사업의 빈틈을 메꾸주는 동시에 기존 한역 경전의 오역을 바로잡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불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원음을 통해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줄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법사 각목 스님과 원장 대립 스님의 열정과 초기불전을 공부하며 위빠사나를 수행하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후원으로 이뤄낸 이러한 역경불사는 종단의 지원 없이 자발적인 원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부처님 원음을 우리 말과 글로 이 땅의 자승산대에 전승돼 한국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종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1월의 테마-시간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시간이란 유수와 같다”, “호흡이다”, “변화다” 등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시간이란 관념은 사람들에게 있어 각기 다르다. 한 가지 공통점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는 점이다. 내가 이 글을 빌어 말하려는 것은 시간 관리에 대한 기술도 아니며, 시간을 잘게 쪼개어 심지어 휴식시간에조차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현재의 시간

에 대한 관념을 돌아보고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간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 한 구석에 두고

꺼내었다 집어넣었다 한다는 점이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끔씩 느낌을 동경하고, 너무 여유로운 사람은 이러다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을까란 생각에 계획과 관리를 돌아보기도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인습적인 사고에 순응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선택하는 것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선택해 왔고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 선택에 대한 믿음과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옛말에 “7일 후에 잘 먹으려다가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프는데 일주일 후에 잘 먹으려고 참다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관련된 다음의 말은 앞선 예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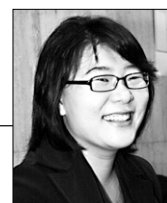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각각의 연령 대에 좀 더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가끔씩 후회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여기에는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보낸 뒤에,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불교에서 현상세계의 모든 것은 항상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무상(無常)을 말한다.

이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나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진정으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확고하게 믿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늘 새롭기에 우리의 삶은 권태로울 수 없으며, 늘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미루어 왔다. 걸을 수 있을 때! 오늘은 열심히 걸어야겠다.

강항숙 상임연구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02)2004-8234-55, 회신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FAX(02)737-0698, 실시간 뉴스 톨타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02)2004-8213-7,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FAX(02)737-0696,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053)768-8008, 경남남부지사(055)746-9778, 광주전남지사(062)384-3009, 영주지사(054)634-3429, 충청지사(043)732-5560, 전북지사(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02)2004-8212/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사찰명: 황학산 대성사. 주 지: 송해원 (송부섭). 주 소: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488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대한불교법회종 총무원장 법하

141회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려 노력한 후...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공경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날짜: 2009년 11월 28일(토) 저녁 9시 ~ 2009년 11월 29일(일) 아침 7시. 준비물: 동참비 2만원. 장소: 분당 하얀마음선원.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WWW.법왕정사.kr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통증. 글로코에이 신제품.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 크림이 항상 통증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글로코에이 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글로코에이 크림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을 뻗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코에이 크림을 팔로우했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를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에 이상을 이룰 수가 있을까 움직이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절상을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생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기까지 쓸 수 있다. 120mlx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동철 015-01-415953 최성욱